



아이폰이 도대체 뭐기에

요즘 신문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아마 '아이폰'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KT가 한국 시장에 아이폰을 들여온 후 얼리어답터(신제품을 빨리 사용해 보는 사람)는 물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지난달 한국 시장에 출시된 지 열흘 만에 10만대 판매를 돌파했으며, 내년 6월 95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이 '돌풍'을 넘어 '태풍'이라는 사실은 이미 해외시장에서 검증했습니다. 지난 2년간 세계적으로 3400만대나 팔렸으며, 특히 올해 들어 하루 8만대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콜라에 이어

능한데, 음악을 들을 때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CD 찾듯이 음악앨범을 고를 수 있죠.

문자나 메일을 쓸 땐 가상 키보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스타일러스펜 없이 손가락으로 바로 입력이 가능하죠. 동영상 촬영 후 바로 편집해서 이메일, 유튜브, MMS(멀티미디어메시지)를 통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3.5인치 와이드 스크린으로 이동 중 영화감상도 즐길 수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최대 장점은 우리나라 1만4000여 곳 네스팟존에서 공짜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스팟존은 커피전문점, 은행, 호텔, 도서관, 관공서, 학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10만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큰 매력입니다.

애플의 온라인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억건을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스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애플이 '개방형 전략'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의 등장은 국내 휴대폰, 이동통신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제조업체에는 '각성'의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폰이 삼성, LG 등 휴대폰 제조업체의 하이엔드(고가 제품) 영역을 잠식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 '옵티아2'를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격을 낮췄다는 점은 삼성의 고민을 짐작케 합니다.

2GB(기가바이트) 용량의 옵티아2는 출고가 92만4000원에서 88만원으로 가격을 내리고, 8GB 용량의 옵티아2는 96만8000원에서 92만4000원으로 낮췄습니다. 2GB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 휴대폰인 햅틱 아몰레드(90만원대)보다 출고가가 더 내려간 셈입니다.

아이폰 대항마로 내년엔 구글의 모바일 OS(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폰' 시장도 크게 뜰 것으로 보입니다.

황시영 기자

인터넷·GPS서 아이팟 기능도 첨단 IT기술 집약된 '스마트폰' 미국 상징하는 새 아이콘으로

미국을 상징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장했죠.

아이폰은 '불세출의 CEO(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미국 애플이 만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PC 기능을 갖춘 휴대폰입니다. 내 손 안의 휴대폰 하나로 메일, 검색 등 웬만한 PC 기능이 간편하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아이폰이 다른 휴대폰 제조업체의 스마트폰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를 꼽자면 수십 가지입니다.

우선 아이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첨단 정보기술(IT)이 모여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그림이나 지도를 확대·축소하거나 손끝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멀티터치' 기능도 있습니다.

아이폰을 가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화면이 가로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이팟(MP3플레이어) 기능도 가

아이폰 제대로 즐기기



무료문자·스케줄관리 서비스등 기능 다양
응용 프로그램은 '앱스토어'서 맘껏 구매
1만4천여곳 네스팟존선 무선인터넷 공짜

아이폰을 제대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아이폰을 손에 쥔 사람은 일주일 정도 이리저리 시험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폰의 기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0대는 '핑' (무료 문자서비스), 20대는 엔터테인먼트, 30대는 SNS(관계맺기 서비스), 40대는 이메일·스케줄 관리 등 사무용으로 주로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핑(ping)은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인데, 무료 문자서비스에 가깝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싶은 상대방이 세계 어디에 있든 전화번호 대신 핑 아이디를 입력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40대에는 엑셀 기능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로 전송된 엑셀파일을 열어보고 포워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해 전국 1만4000여 곳 네스팟존에서 공짜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GPS, 무선인터넷, 나침반 등 원래 아이폰에 있는 기능과 더불어 앱

스토어(아이폰 온라인 장터)에서 지도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완벽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발휘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일까요?

엠앤소프트의 길찾기 서비스 '플레이맵'이 1위, 지하철 노선도 'Jihachul'이 2위, 모바일 전자책 리더인 '리디(Ridi)'가 3위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과 환승 정보까지 알려주는 다음의 '다음 지도'도 인기입니다.

이 밖에 아이폰 카메라로 내 주변을 비추면 근처 스타벅스 등 편의시설을 찾아주는 '바이오닉 아이(Bionic Eye)', 차를 주차하고 그곳 사진을 찍어두면 아이폰 화면을 내비게이션처럼 활용해 차를 찾는 '카파인더(Car Finder)',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다른 상점에서 얼마에 판매되는지 알려주는 '레드레이저(RedLaser)' 등 신기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황시영 기자